

고려대 ICR 센터, '동의를결안' 세미나 개최

관련 실증 자료 발표... "정책담당자, 학자 등 함께 고민할 자리"

(서울=뉴스 1) 정윤경 기자
입력 2014.02.20 13:00:48

(서울=뉴스 1) 정윤경 기자 = 고려대 혁신·경쟁·규제법센터(ICR 센터)는 21 일 오후 2 시 30 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네이버·다음 동의를결안의 배경 및 내용과 향후 전망'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첫 사안이 진행되고 있는 동의를결제도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동의를결제도란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보상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직접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를 토대로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12 월 동의를결 개시결정 이후 네이버, 다음과 30 여일간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를결안을 결정했다고 지난달 1 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선 권철현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의 '동의를결제도의 현황과 전망'을 시작으로, 권국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동의를결안의 개시결정을 위한 조건'과 곽주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동의를결안과 관련된 몇 가지 실증 자료'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최난설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이정민 인터넷 콘텐츠협회 회장, 박종순 다음커뮤니케이션 법무팀장이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간다.

고려대는 "이번 세미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정책담당자, 학자, 실무가들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